

# 빠른 대한민국 영주권 취득,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로 해결하세요!

##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란?(원금보장·무이자형)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정책금융공사(금융위 산하기관)에 외국인이 5억 원 이상을 예치하고, 5년 후 원금만 상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단 55세 이상의 은퇴자의 경우, 3억 원 이상 예치(투자금 이외에 본인 및 배우자의 국내외 자산이 3억 원 이상)

## 특별한 혜택, 꼭 누리세요!

투자과 동시에 국내 출입국, 경제활동 등이 자유로운 거주(F-2)자격이 부여되며, 5년간 투자유지 시, 영주(F-5)자격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투자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미혼자녀에게도 혜택이 주어집니다.

※ 15억 원 이상 투자 시, 조건부 영주자격 즉시 부여

## 문의는 어디로?

법무부에서 지정한 '공익사업 투자이민 유치기관'을 통해 투자절차 및 준비서류, 사증 및 체류허가 등 처리가 가능합니다.

※ **공익사업 투자이민 유치기관** 법무법인 공존(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주) 금홍(서울 중구 정동길), (주)코앰인터내셔널(인천시 연수구 갯벌로), (주)만통(제주도 제주시 원노형4길), 법무법인(유한) 금성(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법무법인(유한) 한별(서울 강남구 역삼동), 에이펙스릴로케이션(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한국 이민재단(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 공존 ZONE

## WINTER THEME GLOBAL TALENT

대한민국의 학구열에 동참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낯선 언어와 음식, 그리고 낯선 얼굴이 있는 타국에서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그들은 한국의 글로벌 자산입니다.



# 시베리아에서 가슴으로 한국을 품다

## Embracing Korea in Siberia



오늘 특별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먼, 시베리아 남부에 위치한 톰스크(Томск)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지만 가슴 속에 한국을 품고 있는 놀라운 사람. 그녀의 이름은 민 마리나(민 Marina). 고려인(옛 소련 지역 거주 한인) 출신으로, 톰스크 국립대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러시아 신민요 밴드 외 자원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팔방미인이다. 하지만 오늘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따로 있다.

마리나가 살고 있는 다문화도시 톰스크에는 1000명이 넘는 고려인이 살고 있으며, 고려인 문화-민족 자치제가 있다. 자치제는 청소년 문화센터 <안녕>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려인 청소년들이 전통 춤과 노래를 배우는 동아리 <아리랑>과 사물놀이 동아리가 있다. 내가 마리나를 처음 만난 곳이 그곳이었다. 나의 특별한 친구, 마리나는 2011년부터 <아리랑>과 사물놀이 동아리를 지도하는 교수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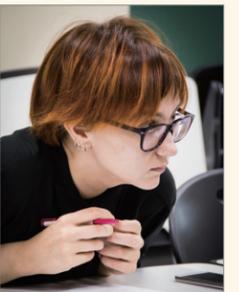
<아리랑>은 마리나의 열정적인 지도 아래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덕분에 많은 상을 받았다. 특히 2014년은 러시아(러시아 제국)와 한국(조선)이 외교관계를 맺은 지 130년이 되고, 고려인이 러시아로 이주한 지 150년이 되는 특별한 해여서 전 지역에서 많은 행사가 열렸다. 톰스크에서도 6월에 울산의 아티스트와 알마-아타 카자흐스탄의 아티스트가 함께 대규모 콘서트를 열었는데, <아리랑>도 무대에 올라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마리나와 <아리랑> 친구들이 내게 잊혀지지 않은 이유는 함께 받았던 수많은 상 때문이 아니다. 공연 준비를 위해서 사람들이 함께 연습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를 치유했다. 톰스크를 떠난 지 1년이 훌쩍 넘었다. 비록 마리나와 <아리랑> 친구를 만나지 못 하지만 한국 전통 음악을 들을 때마다 또는 전통 춤을 볼 때마다 친구들이 생각난다. <아리랑>의 아름다운 공연 덕에, 마리나 교수 덕에 수많은 러시아 사람이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게 됐다. <아리랑>이 오래오래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아리랑>, 그리고 마리나 파이팅!

In Томск, a multi-cultural city where Мин lives in, over 1,000 ethnic Koreans reside there as well and there is a culture-ethnic group self-governing system for ethnic Koreans. The self-governing system operates a cultural center for teenagers called «Annyong» and there is a club called «Arirang» where ethnic Korean teenagers can learn the traditional dances and songs, there is another club too where samulnori can be learnt. This was actually where I met Марина for the first time. My special friend, Марина was a professor who has been supervising «Arirang» and the samulnori club since 2011.

«Arirang» is involved in many activities thanks to the passionate guidance of Марина. Thanks to her, it has received many awards. In particular, 2014 marks the 13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hip between Russia (Russian Empire) and Korean (Joseon) and it marks the 150th year anniversary since the Goryeo people have migrated to Russia. To commemorate such events, most of them were held in different regions of Russia. Even in Томск, a large-scaled concert was held in June by artists from Ulsan and Alma-Ata artists from Kazakhstan and «Arirang» was a part of it, demonstrating great performances.

The reason Марина and «Arirang» lingers in my memory is not because of the numerous awards. By practicing together in preparation for the performance and by performing together, we were able to heal the - of each other's by sharing our warm hearts. Now it's been already a year since I have left Томск. Although I can't see Марина and «Arirang» friends, I think about them every time I hear Korean traditional music or dances. Thanks to the beautiful performances of «Arirang» and thanks to Professor Марина, a lot of Russians learnt about the beauty of Korean culture. I hope and wish ardently that «Arirang» and Марина last forever. Go «Arirang», Go Марина!



**Seoulism** Written by 카르마 노바 예브게니야(러시아) | 어렸을 때부터 아시아문화에 빠지는 등 호기심이 풍부했다. 2008년 한국학을 배우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 톰스크(서남 시베리아)로 이사, 졸업 후 4주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씨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014년 2월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서 문화예술학부 인류학을 공부하고 있는 글로벌 재원이다.

21C 글로벌  
인재의 산실,  
대한민국입니다

● 〈共Zone〉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반가운 뉴스 하나를 들으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자국에서부터 차근차근 한국어를 배우며 열심히 준비한 끝에 목표했던 회사의 입사에 성공한, 어느 외국인 유학생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이제 한국은 글로벌 인재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싶은 '기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전국의 캠퍼스와 교육기관에서 각국에서 온 유학생들과 마주치는 것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 대학과정을 이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어느 외국인들보다도 우리나라를 잘 이해하고 있어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보다 쉽게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인적자원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우리나라에서 잘 정착하여 그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류 및 취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을 제2의 모국으로 여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독자 여러분 모두, 2014년 한 해의 마무리를 잘 지으시고 각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한무근

The Republic of  
Korea  
Incubator of the  
Global Talents  
in the 21th  
Century

● Greetings to all readers!  
I recently heard welcoming news and it gave me food for thought. It was a story about a foreign student who succeeded in getting a job at a Korean company after studying Korean and working hard to get a job in Korea. Korea has become the 'Land of Opportunity' for global talents to realize their dreams.  
It is now common to see students from around the globe in the university campus or education institutes in Korea. Thanks to their fluency in Korean language and university education in Korea, international students are important human resources in our country as they understand our culture better than any other group of foreigners. We believe that they can contribute to 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 with their valuable experience and knowledge. Taking this into account, Korea Immigration Service has strived to improve Korea's work and living environments so that the international students can successfully immigrate to our country and demonstrate their capabilities. We will continue to put our utmost effort to support the international students in such a way that they can consider Korea their second home.  
Lastly, I wish all the readers a great end of the year 2014 and I hope your family will be blessed with good luck and happiness. Thank you.

Commissioner,  
Korea Immigration Service **Han Moo-geun**



2014 WINTER No.36  
세계인과 소통하는 공감매거진



COVER STORY  
준비된 글로벌 인재!  
한국에 온지 2년째인 라베시 마리아 (루마니아) 씨의 꿈은 한국에서의 취업입니다. 동국대학교 광고홍보학과 석사과정을 준비하며 한국에서 제2의, 제3 도전을 기약하는 그녀를 우리는 멀지 않아 글로벌 인재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CONTENTS

- 02 IT'S SEOULISM 시베리아에서 가슴으로 한국을 품다
- 04 EDITOR'S MESSAGE 21C 글로벌 인재의 산실, 대한민국입니다

SPECIAL THEME

- 06 THEME INTRO 또 하나의 Made in KOREA, 외국인 유학생
- 08 THEME SITE 동국대 취업서포터즈와 함께 취업 문 뚫어요!
- 10 THEME GUIDE 썩썩! 핵심요약 정리 '유학생 정책 영역' 모의고사
- 14 THEME INTERVIEW 주한외국인유학생협회 이종길 대표 & 시르와르 씨
- 
- 18 미션! 파서블 강초연 씨의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 20 나의 취업성공기 아모레퍼시픽 손암 씨
- 22 학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최초 위탁형 대안학교 누리다문화학교
- 24 K-food 특공대 김치보쌈 시식 체험
- 
- 28 정책 특집 출입국 정책이 한눈에! 2014 정책 가이드
- 30 출입국 행사 세계인과 함께하는 제4회 한마음걷기축제
- 34 출입국 25시 고향처럼 포근한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 38 우리동네 보물탐방 한국 전통문화의 수도, 전주
- 44 다정다감 그대 오늘도 민원인을 위해 뚝다!
- 46 전문가 기고 유학생 유치를 넘어 활용을 고민할 때!
- 48 출입국 NEWS 4분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식
- 50 출입국 Q&A 외국인 유학생 체류비자 관련 궁금증 해결

〈共ZONE〉을  
애플에서도 만나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업데이트 됩니다.



iOS용



Android용

계간 〈共ZONE〉 2014 겨울호 통권 제36호 비매품 | 편집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 발행일 2014년 12월 | 발행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Tel 02-2110-4019 | Fax 02-2110-0372 |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kr | 기획 및 디자인 (주)더씨네파트너스 Tel 02-2038-7700 | 인쇄 문덕인쇄 Tel 02-462-8980



# GLOBAL TALENT

## 또 하나의 Made in KOREA, 외국인 유학생

대한민국의 학구열에 동참한 또 다른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이번 <공존>에서는 낯선 언어, 낯선 음식, 낯선 얼굴들이 있는 타국에서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들의 열정을 소개하며, 유학생의 체류자격에 대한 맞춤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 정착에 도움을 주는 주한외국인유학생협회의 이종길 대표와 유학생이었던 사르와르 씨를 만나 유학생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문제에 대한 방안을 심층적으로 탐구해 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과 동반성장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共ZONE>이 응원합니다.

**THEME SITE** 동국대 취업서포터즈와 함께 취업 문 뚫어요! | **THEME GUIDE** 쓱쓱! 핵심요약 정리 '유학생 정책 영역' 모의고사

**THEME INTERVIEW** 주한외국인유학생협회 이종길 대표 & 사르와르 씨

# 동국대 취업서포터즈와 함께 취업 문 뚫어요!



11월 12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내 회의실에서 진행된 동국대학교 3기 '외국인 유학생 취업 준비반'의 특강 현장을 찾았다. 그곳에는 유학생들이 맞닥뜨린 '취업'이란 현실적 과제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보자며 나선 든든한 학교가 있었고, 자신의 실패와 성공담을 후배들에게 숨김없이 털어놓는 진솔한 선배가 있었다. 그리고 내일의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 '특급 전략'을 무섭게 흡수하는 후배들이 있었다.

##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기 위한 '특급 전략' 공개

“여러분은 졸업 후에 한국에 남고 싶습니까? 아니면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요려도 씨(중국)의 날카로운 질문에 동국대학교 3기 '외국인 유학생 취업 준비반' 학생들이 잔뜩 긴장했다. 중국어로 진행된 이날 특강 강사는 1기 졸업생이자 미래에셋 상해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요려도 씨. 한국 출장길 중에 시간을 내 모교를 방문한 그는 후배들을 위해 취업 특강을 마다하지 않았다.

“유학생들은 진로 선택에 앞서 졸업 후 한국에 남아 취업에 도전할 것인지, 아니면 본국에 돌아갈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유학생들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각 상황의 장단점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남을 경우에 대비해 국내에서 유망 직종으로 뜨고 있는 분야를 소개했지요.”

청춘들의 '미래'와 직결되는 진중한 주제이기에 시종일관 집중력을 흐트리지 않았던 후배들도 요려도 씨가 면접 때 받았던 당혹스러웠던 질문과 상황 등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를 털어놓자 웃음을 참지 못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국기업 문화에 어떻게 적응했는지', '한국인 직원들과 갈등은 없었는지' 등 학생들이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고민을 하나둘 꺼내놓고, 선배의 조언과 답변으로 말끔하게 해소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 글로벌 인재의 요람으로! 동국대 국제학생지원센터

현재 동국대학교 국제학생지원센터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해마다 동국대를 졸업하는 외국인 유학생 졸업생 수는 평균 150여 명. '그들의 졸업 이후 진로까지도 학교가 함께 고민할 수 없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지금의 '대안'이 만들어졌다고 허정인 국제학생지원센터 계장은 이야기한다.

“대다수의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취업에 실패한 후 좌절감을 맞보고 고국으로 돌아가죠. 한편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고 싶은 기업은 많지만 학생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해야 할 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국

제학생지원센터가 서로를 연결해 주면서 취업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유학생을 인재로 만들어보자고 나선 거죠. 취업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중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만 엄선해 운영했더니 2013년 1기 10명 중 8명이 한국에서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를 아시겠지요?”

학기당 개설되는 '외국인 유학생 취업 준비반'은 취업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1대1 첨삭 컨설팅, 특강 등을 통해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시 노하우를 전문적으로 전수하고 있다. 한편 동국대학교는 취업뿐만 아니라 1학년생의 한국사회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외국인 유학생 전용강좌' 개설, 한국생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인 친구 매칭 '버디 프로그램'과 한국인 학과 선배의 전공 가이드 '튜터링 프로그램' 운영 등 유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게 돕고 있다.

'취업'이라는 현실적 벽을 넘기 위해 대학의 열정적인 지원을 받으며 글로벌 인재로 '특급 성장' 중인 동국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취업 준비반'. 조만간 세상 속으로 나올 그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

## “꼭, 한국에서 교육학자가 될 겁니다”

2012년 4월, 한국에 들어왔을 때만해도 단어 몇 개만 아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한국친구들과도 막힘 없이 대화를 나눌 정도로 한국어 실력이 뛰어납니다. 사내소통에 문제가 없겠지요?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교육학과 석사 과정을 마치고, 한국의 교육관련 기관으로의 취업을 목표로 역량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학교 선배님들을 통해 한국의 조직생활과 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자주 들어서 초기 적응에도 문제 없습니다! 지성과 미모, 여기에 인품까지 겸비한 교육학자가 되겠습니다.

류홍신 (중국, 교육학과 석사과정)





# Key summary Quiz on 'Foreign Students Policy'

쏙쏙! 핵심요약 정리 '유학생 정책 영역' 모의고사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 국제적 감각을 갖추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있는 국내 체류 유학생 수는 어학연수생을 포함해 8만 9,815명이다.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체류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共ZONE>과 함께 재미있게 문제를 푸면서 유학생 정책의 핵심내용을 정리해보자.

The number of foreign students in Korea who are learning Korean language and culture while growing into global talents with global mind has now reached 89,815 (as of September 2014). Various policies are in place to support stable stay and living of the potential foreign talents. Don't you know them very well? Then solve the fun quiz with <共ZONE> to understand the key foreign student policies of Korea.

Q1

한국에서 유학생은 학기 중에 취업을 할 수 없다?

Can foreign students in Korea get a job during semester?

- ① 그렇다, 유학생은 공부에만 집중하자! No, students should focus only on study.
- ② 아니다, 일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다던데... Yes, there is a good policy to allow foreign students to work while studying.
- ③ 모르겠다 I don't know.
- ④ 기타 Others

정답) ② 유학생의 학업과 취업활동을 인정하는 시간제취업

한국에는 전공과의 연관성이 있으면서 학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의 취업활동을 인정해주는 시간제취업 제도가 있다. 학과 조교·도서관 사서 등 근로장학생으로 참여하거나 학점과 연계된 인턴십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교육과정에 따라 허용시간이 다른데, 학부 및 어학연수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당 20시간 이내, 석·박사 및 석·박사 수료 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당 30시간 이내까지 취업이 허용되며, 공휴

일과 방학기간에는 시간제한이 없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시간제취업허가서를 제출하거나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전자민원을 통해 사무소 방문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

A) ② Part-time Employment Scheme that allows foreign students to work

Korea has Part-time Employment Scheme that allows foreign students to work provided that the work is related to the students' major and that it does not interrupt their study. Foreign students can also work as teaching assistants and librarians at the university they are attending, get working scholarship, or do internship linked to the credit without Part-time Employment Permission. The working hours allowed to foreign students differs depending on the course - 20 hours per week for foreign students on an undergraduate course or language course and 30 hours per week for foreign students on a graduate or post-graduate course or in the process of writing thesis after completing a graduate or post-graduate course. There is no time limitation during public holidays and school vacation. Applicants can submit the Part-time Employment Application to the immigration office of registered address or visit Hi Korea website (www.hikorea.go.kr) for online application.



Q2

### 다음 중 논문준비자의 체류기간으로 알맞은 것은? How long can foreign students stay in Korea for writing their thesis?

- ① 정규과정 수료 후 학사는 1년 1 year after completing an undergraduate course
- ② 석사는 1년 6개월 1 year and 6 months after completing a graduate course
- ③ 박사는 3년 3 years after completing a post-graduate course
- ④ 체류기간이 올해 확대 변경됐다던데? The law has changed this year

**정답) ④ 정규과정 수료자의 체류기간 확대**

논문작성을 위해 필요한 체류기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에 따라 2014년 4월부터 정규과정 수료자(논문준비자) 체류기간이 확대됐다. 개선안에 따라 정규과정 수료 후 학사는 2년, 석사는 3년, 박사는 5년 이내에서 체류가 허용된다. 지도교수의 확인서, 재정입증 서류 등을 준비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A) ④ Extension of stay for students who have completed a regular course**

Following foreign students' opinions that they don't have enough time for writing a thesis, the duration of stay for foreign nationals who have completed a regular course in Korea (and in the process of writing a thesis) has been extended as of April 2014. The revised law allows the students with foreign nationals to stay up to 2 years after completing an undergraduate course in Korea, 3 years after completing an undergraduate and a graduate course in Korea, and 5 years after completing an undergraduate, a graduate, and a post-graduate course in Korea. The applicants should visit immigration office of registered address with the certificate by a tutor and financial statement to apply for extension of stay.

Q3

### 한국에서 영어 연수도 받을 수 있을까? Can I study English in Korea?

- ① 그럼, 한글만 배우는 게 아니라구! Of course, you can study English in Korea!
- ② 아니야, 한글부터 배워야지! No, you have to study Korean first!
- ③ 모르겠다 I don't know.
- ④ 기타 Others

**정답) ① 유학생의 영어 연수 허용 확대**

2014년 4월부터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성인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까지 대상이 확대되고, 연수 범위도 한국어 외에 영어 등 외국어도 가능하게 됐다. 외국어 연수를 원하는 유학생은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신청서를 신청하거나 또는 소속 대학이 유학생을 대리해 신청할 수 있다.

**A) ① More opportunities for foreign students to study English**

In the past, the foreigners who have received secondary education can study only Korean at University



language schools. However, from April 2014, foreigners who are attending a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can also study at the language schools not just to study Korean but also to study English. Foreign students who wish to do a language course in Korea can apply for the Certificate for Confirmation of Visa Issuance at the immigration office of registered address or ask the university to apply for it on behalf of the students.

Q4

### 다음 중 창업을 준비 중인 유학생을 위한 비자, 창업비자의 발급 조건은? What are the requirements for Start-up Visa for foreign students who plan to set up a business?

- ① 우수 기술력 소유자 High-level skills
- ② 학사학위 이상 소지 Bachelor's degree or over
- ③ 법인설립 Establishment of a corporate body
- ④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지식재산권 소양 교육 수료자 Completion of Basic Education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Overall Assistance for Star-up Immigration System (OASIS)

**정답) 모두 정답! 창업을 꿈꾸는 유학생을 위한 창업비자**

2013년 10월부터 국내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에게 창업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나아가 창업비자를 발급받은 후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 한국인 고용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는 영주(F-5)자격을 부여한다.

**A) All of those! Start-up Visa for foreign students who wish to set up a company**

Since October 2013, Korea Immigration Service has been issuing Start-up Visa to the foreign national who are preparing to start a company in Korea. Also, the foreign nationals who have stayed in Korea for more than 3 years after receiving the Start-up Visa and who have met certain requirements such as employment of Koreans are granted Permanent Residence (F-5) status.

#### VISA NEWS

**E-1, E-3~5**

**재외공관 방문 필요 없는 전자사증제도 이용하세요!**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및 전문직업(E-5) 등 전문인력은 재외공관에 방문할 필요없이 휴넷코리아포털(www.visa.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비자 발급 신청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Use the E-visa System without visiting the missions of Korea abroad!**

Professorship (E-1), Research (E-3), Technology Transfer (E-4) 및 Professional Employment 등 and other professional talents can apply for visa not only for themselves but also for their spouse and underage children on Hunet Korea Portal (www.visa.go.kr) without visiting the missions of Korea abroad.

## 외국인 유학생에게 ‘당신’이라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국내 대표적인 유학생 자생 커뮤니티, 주한외국인유학생협회(KINSA)의 이종길 대표가 그동안 만나온 유학생들에게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한국어가 어렵다”, “취업하고 싶다”와 함께 “한국인 친구가 없다”는 것이었다. 낯선 땅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차별이 유학생을 지치게 만들었지만 이종길 대표와 사르와르 씨(방글라데시)가 제시한 답은 희망적이다. ‘함께 하면 쉽게 지치거나 힘들지 않을 것’이라고, 기꺼이 ‘당신의 친구’가 되어 주겠다고.

### KINSA를 알면 한국생활이 달라진다

2011년에 설립된 주한외국인유학생협회(이하 KINSA)는 국내 대표적인 유학생 자생 커뮤니티이다. 각국 유학생 동호회와 각 대학 유학생회를 연계해 한국문화 소개나 언어 교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로 온라인상에서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한 달에 한두 번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기도 하며 각 국가별 커뮤니티의 회장단으로 구성된 정기모임도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KINSA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을 거쳐 간 유학생들만 해도 100여 개국 약 1만 1천 명에 이른다. 문득 KINSA의 시작이 궁금해졌다.

**이종길** | 한국에 유학생들의 수가 매년 늘어난다는 뉴스를 보고 호기심이 생겼어요. ‘유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는 무엇이 있을까? 앞으로 더 많은, 더 큰 활동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하고 고민한 거죠.

**사르와르** |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으니 한국생활에 불편한 점도 많고, 활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향수도 큰데 한국인 친구를 사귀는 게

쉽지 않아서 외로움을 달랠 방법도 적어요. 자유롭게 여행을 떠나지도 못하고요. 저 역시 여러 상황 때문에 자신감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KINSA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점점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이종길** | 초기에는 유학생들에게 메일이나 전화를 받으면 무조건 시간을 냈었어요. 한번은 카페 한 자리에서 30분 단위로 유학생을 만나 상담해주기도 했죠. 그때 든 생각이 ‘이 친구들 마음이 담혀있구나!’ 였어요.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이방인에 대한 ‘차별’ 때문에 상처 입은 경험이 많았어요. 제가 취업이나 한국어, 이성문제 등 유학생 문제의 전문가도 아니고,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도 아니었지만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줄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했던 거죠.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관심’이라면, ‘소통’이 문제의 해결방법이 될 수 있을 거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KINSA가 먼저 한 일이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는 환경, 즉 국적별 커뮤니티가 없는 유학생들이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죠.

### 우리가 ‘형님’, ‘아우’가 된 사연

KINSA를 통해 ‘친구’라는 인연을 맺은 사연 중에 두 사람도 있다. 설립 초기 만나 우정을 나누는 지 올해로 3년째, 이종길 대표와 사르와르 씨의 호칭

### 이종길 JASON LEE

2011년에 설립된 주한외국인유학생협회의 대표. 재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어다녔다. 현재 외국인 관련된 기관에서 직장인으로 근무하며 다른 형태로 외국인을 만나 소통하고 있다.

### 사르와르 SARWAR KAMAL

2011년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온 후 인하대학교에서 국제통상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재한 방글라데시인을 위한 커뮤니티를 설립, 운영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신세계인터내셔널 PL사업부 소싱팀 사원으로 2년째 근무 중이다.





자꾸 관심을 가지고, 그를 친구로 느끼면 차별이 생길 수가 없을 겁니다. 민간 외교관인 한국 학생들이 유학생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은 '형님'과 '아유'. 특히 단단한 취업의 문을 뚫고 취업해 KINSA 회원들의 성공모델이 된 사르와르 씨는 자랑스런 동생이 되었다.

**이종길** | KINSA 멤버를 영입하기 위해선 학교마다 있는 국가별 모임 대표를 만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무조건 연락부터 해서 만날 장소를 정하곤 했는데, 재미있게도 사르와르는 제게 먼저 연락해 온 첫 사례였죠.

**사르와르** | 2011년 2월에 한국에 들어와, 인하대학교에서 국제통상학 석사 과정을 준비하던 때였어요. 인터넷을 통해 KINSA에 관한 기사를 보고 형님에게 먼저 전화했죠. 유학생들을 대표하는 '연락통'이었던 제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더 많이 알아야겠다는 생각에서요.

**이종길** | 초창기 멤버이기도 하지만 사르와르는 참 눈에 띄는 친구였어요. 누구보다 성실하고, 성격도 밝아서 주위 사람들을 잘 챙겨요.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KINSA 일에 참여하기가 힘들지만 제가 도움을 구하면 '형님~'하며 가장 먼저 달려와 주는 친구가 사르와르예요. 이제는 같은 직장인으로서 애환을 나누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르와르** | 신세계인터내셔널에 취업한 지 어느덧 2년이 다 되어가네요. 2012년 입사해 인턴시절을 거쳐 2013년 3월 정직원이 됐어요. KINSA와 형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 유학생들의 NO.1 고민은 취업

취업 및 한국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KINSA 홈페이지의 첫 번째 카테고리인 'JOB(취업)'이다. 홈페이지 내 긴급 공고를 보고 지원한 것이 인연이 되어 취업에 성공한 사르와르 씨처럼 제법 많은 유학생들이 도움을 받았다. 이종길 대표는 채용정보 게시는 물론 검증 등 까다로운 일들을 손수 챙기고 있다.

**이종길** | 유학생이 벤처기업에 취업했는데 갑자기 회사가 부도를 맞아 비자 문제가 발생한 일도 있었고, 계약서 등 채용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유학생들에게 당부도 하지만 제가 먼저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르와르** | 유학생인 제 아내나 주위 유학생들을 보면 가장 큰 고민은 취업

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어려워서 유학생의 70~80%는 고국으로 돌아가요. 유학생이 필요한 기업과 취업하고 싶은 학생이 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워요. 그런 점에서 KINSA가 제공하고 있는 취업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종길** | 현재 'KINSA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 정보만 제공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취업이 되지 않아 문제점을 찾아보니 유학생들의 기초가 부족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력서 쓰기부터 시작해 인터뷰 노하우와 자세, 한국기업 문화 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르와르** | 이력서 한 장에 자신을 표현해야 하는데 유학생들은 기업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파악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예 생각하기도 하고요. 면접 매너나 분위기를 몰라서 면접장에 티셔츠와 청바지 등 맞지 않은 옷차림을 하고 간 유학생도 있다고 들어요.

**이종길** | 이러니 실전 경험도 정말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난 10월 코엑스에서 열린 해외취업박람회에도 KINSA 회원들이 함께 방문해 면접의 실전을 경험했습니다. 내년부터 KINSA는 취업 한국어 강좌,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탄탄한 중소기업과 유학생들이 서로에게 매력을 갖게 만드는 집중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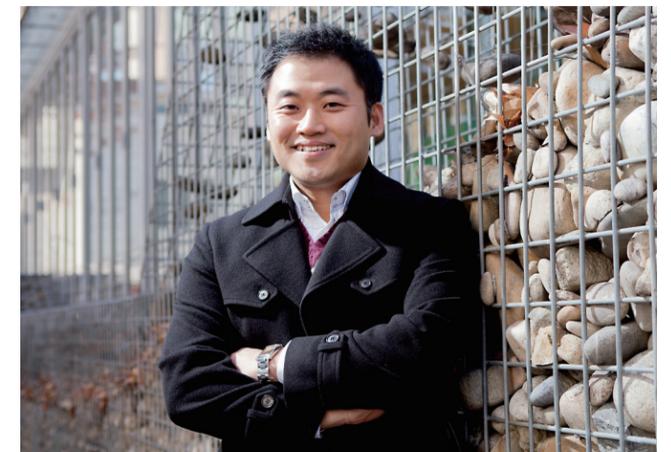
#### 유학생 스스로 달라져야

한편 두 사람은 유학생들이 종종 스스로를 '약자'로 생각하는 태성에 젖어있는 건 아닌지 한번쯤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길** | 한국에는 한국어 교육이나 정착 지원 등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편으론 이런 시스템이 학생들을 나약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학생 스스로 꿈을 설계하며 진로를 개척해야 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된 경우도 있죠. 남의 도움만 바라는 유학생을 만나면 따끔하게 혼내줍니다.

**사르와르** | '나는 외국인이니까'하고 한국어를 배울 생각도 갖지 않은 채 석사, 박사학위를 마칠 때까지도 한국어를 한 마디도 못하는 유학생도 있어요. 한국에서 취업을 반드시 하고 싶다면 적어도 한국어 중급 이상은 배워야겠다는 자세와 노력은 갖춰야 하죠.

**이종길** | 한편 우리도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차별'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닐까요? 자꾸 관심을 가지고, 그를 친구로 느끼면 차별이 생길 수가 없을 겁니다. 민간 외교관인 한국 학생들이 유학생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정부, 관련 기관, 대학 등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외국인 유학생 행사에 한국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 가운데 KINSA가 유학생 여러분의 다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



#### KINSA OFF-LINE



#### 문화행사

월 1~2회 정도 정부부처, 외국인 관련 기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한국의 관광 명소 및 문화유산을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이다.



#### KINSA 아카데미

이력서쓰기부터 인터뷰 노하우와 자세, 한국기업문화 등에 대해 전문가가 취업에 성공한 KINSA 선배들과의 자리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이밖에 취업특강 및 캐리어 세미나 등 행사를 주최하고 있다.



#### 커뮤니티 회원 정기 모임

주로 온라인상에서 활동이 이뤄지지만 정기적으로 각 국가별 커뮤니티 회장단을 만나 의견을 주고 받으며 커뮤니티 활동을 여러 측면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30~40명의 회원이 모일 정도로 뜨거운 참여율을 보인다.

주한외국인유학생협회(KINSA) <http://kinsa.org>

2011년에 설립된 주한외국인유학생협회(KINSA)는 국내 대표적인 유학생 자생 커뮤니티이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각국 유학생 동호회와 각 대학 유학생회를 연계해 한국문화 소개나 언어 교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로 온라인상에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 차근차근 배우면 나도 '분리수거의 달인'!

집에서 나오는 각종 생활 쓰레기를 버릴 때가 되면 한숨부터 쉬었다던 강초연 씨. 한국생활 7년차의 간간한 주부로 거듭나기까지 솔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중 분리수거는 그녀를 매일같이 괴롭히는 골칫거리였다. 그러나 이제는 분리수거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그녀! <共ZONE>과 함께 실력을 검증해 봤다.



## 완벽하게 이해하셨군요! ★★★★★

**강초연 씨의 도전** “쓰레기 종류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인지, 생활 쓰레기인지 구분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재활용을 위해 다시 한 번 재질이나 특성을 확인하느라 시간도 많이 걸렸고요. 건전지와 약품, 형광등 같은 일부 쓰레기는 정해진 장소의 분리수거함에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한번 더 분리했어요. 이쯤이면 '분리수거의 달인' 맞죠?”

### 달걀 껍질도 음식물 쓰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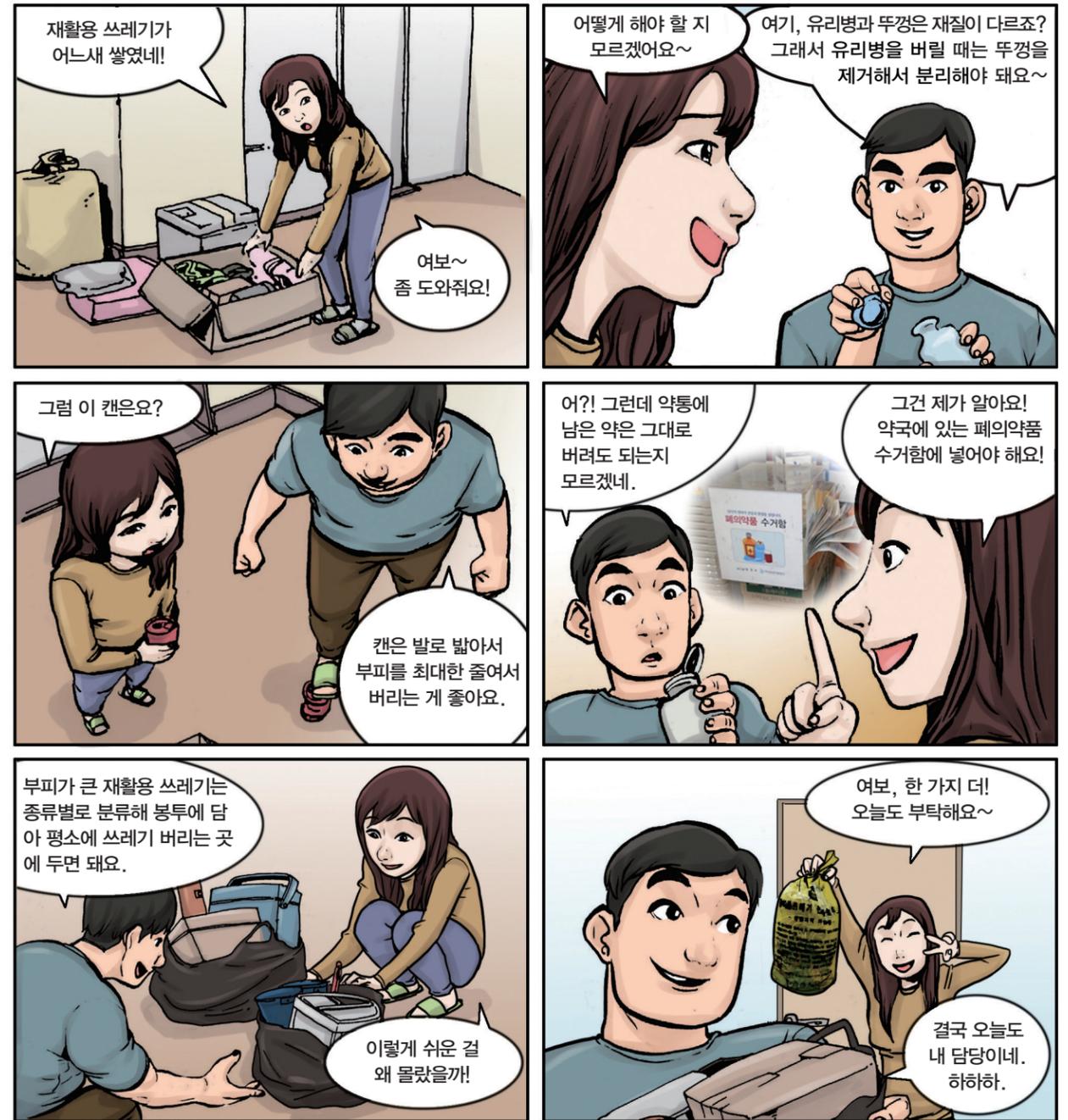
한국생활 7년차 강초연 씨는 고국 베트남에서는 단 한번도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본 적이 없었다. 그렇기에 분리수거는 매일같이 나오는 쓰레기를 하나하나 분리해야 하고, 또 답아야 하는 봉지의 종류나 버리는 장소도 제각기 다른, 주부로서는 신경 쓸 것 많고 귀찮은 일로 느껴졌던 것이 사실이었다.

“쓰레기 종류에 따라 분리법이 다른 것이 가장 혼동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쓰레기가 쌓이면 남편부터 불렀죠. 이제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인터넷을 검색해서 정보를 그때그때 확인해요. 달걀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일까요, 아닐까요? 이렇듯 헛갈리는 것이 많은데요, 대다수의 초기 결혼이주여성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문제예요.”

### 분리수거, 왜 해야 하나요?

그녀를 달라지게 만든 것은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나서부터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보통 소각되는데, 이때 생기는 환경물질로 인한 대기 오염, 그리고 그 공기를 마시는 우리 몸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품목별로 나뉘어 쓰레기를 버리면 훨씬 수월하게 자원을 재사용할 수 있어 자원이 절약된다. 강초연 씨는 과거의 자신처럼 분리수거를 부담스럽고 귀찮게만 여길 후배 결혼이주여성들이 분리수거의 의미를 함께 알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쳤다. 지금 당장은 귀찮은 일로 느껴지더라도 분리수거를 실천하는 작은 행동이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 모두의 환경을 지킨다는 점을 당부했다. 분리수거 실천에 앞장선 그녀의 실력은 과연? 🍀

## 결혼이민자 강초연 씨의 분리수거



● **부피가 큰 폐가전제품 버리는 방법** 가정을 방문해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서비스를 이용해보자. 단 무상수거가 가능한 품목(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과 수거불가 품목(폐가구, 운동기구, 악기류, 전기장판 등)이 있으니 유의하자.

\* 인터넷 접수 : 폐가전 수거 예약센터(www.edtd.co.kr) / 콜센터:1599-0903 / SNS:weec(카카오톡 ID)

# YES! 나는 아시아 뷰티 크리에이터!

‘아름다움’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을까? 국경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 고객들에게 아시아의 문화가 풀어 온 미(美)의 정수를 선보이는 글로벌 기업, 아모레퍼시픽과 그 일원이 되어 전 세계를 상대로 원대한 꿈을 키워가는 손암 씨(중국)를 만나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의 美 전도사로 나선 '장그레'

“아시아의 약용식물을 이용해 피부 고민의 근본부터 케어하는 한방 브랜드 설화수(Sulwhasoo)가 바로 제가 맡은 제품이에요. 설화수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매일 해외 뷰티 트렌드를 파악하는 한편 전국 백화점 및 판매장을 찾아가 우리회사 제품뿐 아니라 경쟁사 제품 모니터링도 하죠. 한 주가 끝나면 실적·마감보고도 해요. 이 정도면 일등 신입사원, 장그레 정도는 되지 않나요?”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브랜드 마케팅팀의 손암 씨에게서는 신입사원이 보이는 조급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2014년 7월 정직원 채용에 앞서 5개월간의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업무능력을 검증 받고, 기본기를 탄탄하게 단련시킨 덕분이다. 이런 노력으로 2년간의 동국대 무역학과 석사과정을 마치기도 전에 입사에 성공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지원한 처음이자 유일한 회사였기에 기대가 컸고, 한국에 오기 전 중국에서도 기록적인 매출 경신으로 명성이 자자한 ‘라네즈’ 브랜드를 통해 관심과 신뢰가 두터웠던 곳이 아모레퍼시픽이었다.

“학교에 다닐 때 언어교환을 하며 처음으로 마음을 주고 받은 한국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지금 아모레퍼시픽 직원이에요. 참 신기한 인연이죠? 고향 친구들과 가족에게 우리회사를 ‘한국에서 가장 큰 화장품 회사’라고 소개하니 모두들 부러워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 공평한 기회를 주는 글로벌 기업문화

한국어 실력만큼은 자신했지만 거래처와의 전화통화나 업무 보고서를 작성할 때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고, 언어나 문화차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녀가 현장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던 데는 아모레퍼시픽만의 글로벌 인재 제도와 사내 분

위기가 큰 힘이 됐다. 아모레퍼시픽은 국내 대학 출신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역량을 키우고, 기업문화 적합성을 평가한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글로벌 인턴제도’와 함께 ‘헤초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를 주도할 국내외 직원들의 다문화 체험 향상과 인재 육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외국인직원도 국내직원과 구분없이 현업배치 이후부터 인큐베이팅 프로그램과 크로스 멘토링 활동을 통해 조직을 이해하고,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외국인직원에게 공평하게 성장 기회가 주는 것이 자연스런 기업문화가 있는 회사이고, 동료들과도 마음을 열고 소통해요. 김민아 팀장님과 선배님들의 배려로 하루하루 배우면서 즐겁게 일합니다.”

아름다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속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다. ‘30억 명의 아시아인이 가진 아름다움과 그 꿈’을 실현하는 아시아 뷰티 크리에이터로 나선 그녀의 꿈과 내일이 지금처럼 아름답게 빛나길 응원한다. ☺

## Know-how on successful employment

### ● 전화통화에 익숙해 지세요!

중요한 업무는 메일로 주고 받을 수 있지만 다급한 상황에서 대부분 전화로 업무를 처리하는 일이 많습니다.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화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 건 아닌지 등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 ● Get used to taking on the telephone!

While important work can be handled through e-mails, in a lot of cases, urgent work needs to be done over the telephone. Develop a habit of checking whether the person on the opposite side of the telephone has received your message properly, or whether you need to give somebody else a message.

### ● 면접 볼 때는 ‘강한 눈빛’이 좋아요!

정규직 채용을 위한 임원면접 때, 인턴십 기간 동안 제가 한 일을 PT로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정말 많이 떨렸지만 되도록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면접관이었던 부장님이 그날 제 ‘강한 눈빛’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 ● ‘Intense eyes’ are best for interviews!

During the final interview with the company executives before being officially hired, I gave a presentation on what I’d done during the internship program. It was nerve wracking, but I tried to answer the interviewers’ questions with confident a voice as possible. Later, my general manager, who was one of my interviewers, told me what he liked best was my ‘intense eyes.’



## 경기도 최초 위탁형 대안학교 누리다문화학교

# 자신감 넘치는 나를 발견하는 배움터!

단단한 자존감은 스스로의 성취로 느낄 수 있지만 타인의 사랑이나 인정을 통해서도 얻어진다. 특히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기에, 충분한 관심과 인정을 받지 못한 다문화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충족되어야 할 덕목이기도 하다. 누리다문화학교가 아이들의 자신감과 자존감 회복에 교육목표를 집중하는 이유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 오늘은 나도 한식 요리사?

오늘은 누리다문화학교 학생들과 주엽고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꾸려가는 동아리 활동이 있는 날! 두 학교의 학생들이 조를 이뤄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한식 요리 경연으로, 각 조의 리더들이 앞으로 나와 제비뽑기로 조별 메뉴를 즉석에서 정했다. 불고기, 김밥, 튀김, 볶음밥, 오프라이스 등 아이들이 평소 자주 먹는 메뉴였지만 만들기는

익숙지 않아 보였다. 친구의 어설플 칼질을 지켜보던 옆 친구들의 웃음꽃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지글지글 야채 익는 소리와 맛있는 냄새가 요리가 완성됐음을 알려줄 쫄, 아이들간 어색함도 사르르 사라져 있었다. 파키스탄, 중국, 몽골, 베트남, 그리고 한국 등 서로 다른 모습을 한 아이들이 한데 어울려 한지붕 아래에서 교육을 받는 풍경은 머지않은 우리 교실을 보는 듯 했다.

### “학교 적응 걱정 없어요!”

“중국에서 온 저는 한국 아이들과 만나기 전까진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만난 아이들은 저를 친구로 인정하고, 잘 대해 줍니다. 누리다문화학교 선생님들의 지도와 상담이 큰 도움이 되었죠. 내년엔 누리다문화학교를 졸업하고 일반 고등학교로 돌아가는데 다문화 친구들과 함께 했던 이곳에서의 시간이 그림고, 언제나 생각나는 고향이 될 것 같아요.”

김평(17)



“다문화 아이들이 한국 학생들과 함께 하는 동아리 활동이나 특별활동을 하고 나면 아이들간 끈끈한 정이 생기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면서 잃었던 자신감도 회복하죠.”

경기도 최초 위탁형 대안학교인 누리다문화학교는 ‘공교육 진입의 징검다리’가 되어 다문화 학생들의 곁에 있다. 기초 학력 증진과 더불어 특별활동,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소질과 특성에 따라 성장할 수 있도록 새 길을 내는 데 힘쓰고 있다. 12월 4일, 누리다문화학교는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주최한 행사에 참여해 600여 명의 관객들 앞에서 뮤지컬 공연을 선보였다. 뮤지컬 배우로 활동했던 선생님과 아이들과 일궈낸 첫 무대로, 관객 반응은 뜨거웠다.

### 친정 같은 학교, 우리 선생님이 최고!

누리다문화학교가 집중하는 부분은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이다. 부모님의 재혼 등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국에 오게 된 경우가 많아

초기 입국 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많고, 부모와의 갈등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교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과별 선생님 외에도 담임선생님이 배정되어 아이들의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심리학을 전공하거나 한국에서 7년간의 유학생 생활 경험이 있는 중국인 선생님이 아이들의 상처입은 마음을 다독여준다. 일반 학교로 돌아간 아이들도 누리다문화학교를 친정처럼 여기고 자주 방문할 정도로 선생님과의 친밀감을 자랑한다.

한편 누리다문화학교는 학교의 규모 확장을 위한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다. 매월 200명이 방문하는 법무부 지정 ‘이민자사회통합센터’와 일산다문화교육센터와 가깝게 위치해 있기에 자녀들의 입학 문의를 해오는 사례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자신감 넘치는 나를 찾고 발견하자’. 누리다문화학교의 교훈에 걸맞은 밝은 표정의 다문화학생들이 희망을 설계하는 그 날까지 누리다문화학교와 선생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이다. ☺

### 입학 자격

- 경기도 거주 중도입국자녀 및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
- 일반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다문화가정, 난민가정 자녀

### 학교 특성

- 학력인정: 중·고 학력 인정
- 교육과정: 기본 교육과정 50% + 특성화 교육과정 50%
- 위탁교육기관: 1년 재학 후 원적교로 복귀  
(최대 3년까지 본교 교육 가능)

### 입학 안내



문의 031-919-4025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43 가람상가 4층 누리다문화학교  
홈페이지 <http://nurischool.kr>

# 김장하는 날 저녁메뉴는? 무조건 김치보쌈!

김장철이 돌아왔다. 고추 구입부터 배추 절이기, 양념, 보관까지 어느 것 하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어 주부들에게는 끝없는 '노동'의 날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잔치 날이다. 갓 담은 김치와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보쌈이 그날 저녁메뉴가 되기 때문. 김치와 보쌈의 조화가 익숙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솔직한 맛 평가를 들어봤다.



## 한국인 식탁의 대표 콘텐츠는 김치

김치는 대표적인 발효식품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가 담긴 메뉴이자 문화 콘텐츠다. 그래서 한식하면 김치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외국인도 많다. 중국과 루마니아에서 온 최성미 씨와 라베시 마리아 씨도 김치로 한식을 처음 맛봤다.

“루마니아에 있을 때 한국인 친구의 소개로 김치를 먹어봤어요. 김치의 첫맛은 ‘신기한 맛’이었죠. 짠 맛이 강한 루마니아 요리와 달리 김치가 정말 매웠거든요. 그날은 하루종일 물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제가 한국으로 유학을 온 지 2년째인데, 이제는 저희 부모님들도 김치를 알아요.”

“김치를 처음 먹었을 때는 맵고, 신맛이 강해서 당황했어요. 중국에서는 야채를 기름에 볶아 먹기 때문에 맵지 않거든요. 제 입맛에는 안 맞아서인지 김치를 자주 먹진 않아요. 하지만 저와 같은 기숙사에 사는 몽골 언니는 김치가 입맛에 딱 맞아 매일 김치찌개를 직접 끓여 먹어요.”

한국에 1년 먼저 들어온 선배답게 마리아 씨는 김치에 대한 특별한 추억이 하나 더 있다.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김장 행사에 참여해 김치를 직접 담가본 경험이 있는 것. 갖가지 야채로 김치 양념을 만들고, 절인 배추 속에 양념을 채워 넣으려 한겨울에도 식은 땀이 났었다.

“챙길 것이 너무 많아서 김장은 혼자서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담가야 할 김치가 너무 많아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유학생들과 봉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담그니까 힘든 줄도 모르고 재미도 있었어요. 그날도 돼지고기를 삶아서 김장김치와 곁들여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또 담근 김치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어 더 좋았고요. 한국의 문화는 늘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 많아 좋아요.”

## 김치 같이 개성 넘치는 한국문화가 좋아요

덕성여대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최성미 씨와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광고홍보학 석사과정을 준비 중인 마리아 씨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그녀들이 한국행을 선택한 이유, 김치처럼 개성 넘치는 한국문화이다.

“세계 최대 소비지로 급부상한 중국시장에서 시각디자인 업종의 전망이 밝은데요, 한국의 창의적인 디자인을 높이 평가해 줍니다. 디자인은 그 나라의 문화를 철저히 이해해야 가능한 작업이어서 한국에서 제대로 문화를 배우고, 디자인 실력을 쌓기 위해 유학을 결심했어요. 지금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문화는요, 치맥이에요.”

“어릴 적에 우연히 한국이란 나라를 알게 되었고, 이후에 전통과 현대의 문화가 공존하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졌어요. 그래서 루마니아의 대학교에서도 한국어를 전공했고, 한국까지 오게 됐어요. 한국 땅에서 제가 경험한 한국문화에 대한 평가는요, 기대했던 것 이상이에요.”

한국문화에 남다른 애정을 가진 두 사람에게 한식의 정수, 김치보쌈이 과연 어떤 점수를 받을지 궁금하다. ☺





마리아 (루마니아, 24세)

별점 ★★★★★

루마니아에서도 돼지고기와 배추를 곁들여 먹는 음식이 있어서 낯설지 않았어요. 한국인들이 왜 김장을 하고 나서 꼭 고기를 삶아 보쌈을 먹는지 알겠어요. 막걸리도 추천해 주셔서 함께 먹었는데 세 음식의 궁합이 최고네요!

It wasn't too strange to me, since we have dishes with pork and cabbage in Romania as well. I understand why Koreans make a habit to always have pork with their newly made 'gimjang' kimchi. Add a glass of makgeolli, and the balance is just perfect!



최성미 (중국, 22세)

별점 ★★★★★

고기 간이 조금 약해서 따로 먹으면 좀 심심했는데, 김치랑 먹으니 간이 딱 맞네요! 평소에 '빨간 김치'를 잘 먹지 못해서 물에 고춧가루를 씻어먹었는데, 오늘은 백김치라서 맵지 않아 좋았어요.

The meat by itself would need a bit of seasoning, but with a bit of kimchi, it's right on the spot! Normally, I can't eat 'red kimchi,' and I need to rinse off the seasoning in water, but today it was nice to have 'white kimchi.'

보쌈도 먹고, 지식도 얻고!

유네스코 지정 인류 무형 문화유산 등재 된 '김장문화'

2013년 12월 한국의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 지정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김치는 이제 단순한 음식을 넘어 전통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우리가 흔히 먹는 포기김치는 결구배추(속이 찰 배추)가 도입된 17세기 후반부터 등장했다. 재료와 담그는 법, 지역에 따라 수백가지가 넘는 김치는 영양학적으로도 몸에 좋은 성분이 고루 섞인 복합 발효 식품으로 인정받는다. 유산균이 풍부하고 칼슘과 인이 많이 함유된 김치는 슬로푸드를 대표하는 음식이기도 하다.

영양도 챙겨요! 한식의 음식궁합!

프랑스어로 '결혼'을 의미하는 마리아주(Mariage)는 와인과 음식의 궁합을 나타내는 말이다. 마리아주의 한국판, 최고의 조화를 자랑하는 겨울철 한식 메뉴를 소개한다.



진한 팥의 풍미를 느끼는 단팥죽에는? 동치미 국물!

따뜻하게 속을 채워줄 뽕자가 절실한 때, 엄마의 정성과 손맛이 끓여낸 단팥죽 한 그릇만한 별미가 또 있을까. 한국인들은 단팥죽과 함께 시원한 동치미를 곁들여 먹는데 아삭한 동치미무로 반찬을 대신하고, 톡 쏘는 동치미 국물을 들이켜 뜨겁고, 텁텁해진 입 안을 시원하게 식힌다. 한편 설탕은 팥에 들어 있는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사포닌 성분을 파괴하므로 설탕보다 약간의 소금으로 간을 하는 것이 영양학적으로 궁합 좋은 선택이다.



호호 불어가며 아껴먹는 군고구마에는? 신 김치!

겨울철 일등 간식으로 남녀노소 사랑받는 군고구마! 한국인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군고구마 위에 익은 김치를 올려 먹곤 하는데, 이는 영양학적으로도 바른 선택이다. 김치에 있는 나트륨을 고구마가 조절해 주어 영양의 균형을 맞춰줄 뿐만 아니라 혈압까지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 집에서 군고구마 만드는 법은 고구마를 알루미늄 호일에 싸서 오븐이나 토스터에 굽거나 신문에 싸서 전자레인지에서 익히면 된다.



겨울철 찬 바람에 제맛 난 과메기에는? 다시마!

'바다의 산삼'으로 불리는 과메기. 겨울철 얼려두었던 콩치나 청어 등을 외부에 걸어 자연 해동과 냉동을 반복하며 반건조시킨 것으로, 혈관 건강에 이로운 DHA·EPA 등 오메가3 지방 함량이 콩치보다 많다. 과메기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으로는 곁들여 먹는 재료의 선택이 중요한데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파, 양파, 마늘 등의 채소와 함께 번비, 비만 예방을 돕는 김, 미역, 다시마와 함께 섭취하면 맛과 영양을 고루 챙길 수 있다.



# Immigration Now

2014 WINTER

정책특집 | 출입국 정책이 한눈에! 2014 정책 가이드

출입국 25시 |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우리동네 보물탐방 | 한국 전통문화의 수도, 전주

다정다감 그대 | 오늘도 민원인을 위해 뚝다

전문가 기고 | 유학생 유치를 넘어 활용을 고민할 때!

출입국 NEWS | 4분기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소식

출입국 Q&A | 외국인 유학생 체류비자 관련 궁금증 해결

# 출입국 정책이 한눈에! 2014 정책 가이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복잡하고 어려운 출입국 정책을 민원인들이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인포그래픽을 통해 정보를 제공해왔다. 2014년 한 해 동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펼쳐온 정책 정보(인포그래픽)를 모아 보았다.



##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란 무엇인가요?

- 사전에 지문과 얼굴 정보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여권과 지문을 자동출입국심사대에 인식시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첨단 출입국심사서비스입니다.
- 출입국 심사관에게 여권을 보이고 대면심사를 받는 부담과 번거로운 절차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에서 출입국심사를 마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홈페이지(www.ses.go.kr)에 접속하세요.  
문의 전화 : 인천공항(032-740-7400), 김포공항(02-2664-6202), 김해공항(051-979-1352), 대구공항(053-980-3572), 제주공항(064-743-3494)

## 출입국우대카드 제도

### 출입국우대카드 제도란 무엇인가요?

사회공헌 문화 조성 등을 위해 사회공헌자 등에게 국제공항 출국장 전용출입문 및 출입국우대심사대 이용 등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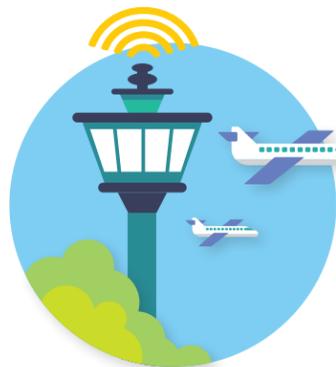
### 어떻게 발급 받나요?

선정기관으로부터 카드발급 안내 ▶ 신청서를 작성하여 선정기관에 신청 ▶ 법무부의 자격심사 후 발급

## 환승관광무비자입국프로그램

### 환승관광무비자입국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 인천공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가는 환승객 또는 제주도로 가기 위해 국내공항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여행객을 대상으로 공항 인근 지역을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접속하세요.



## 하이코리아(HI KOREA)

### 하이코리아란 무엇인가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는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이 필요한 투자, 고용, 거주, 생활편의 등의 정보를 하나의 창구로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대표 사이트입니다.

###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인터넷 주소 www.hikorea.go.kr에 접속 후 이용하세요.  
포탈안내 서비스는 24시간, 전자민원 신청 가능시간은 평일 07:00~22:00



## 사회통합교육

### 사회통합교육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결혼이민사증 발급 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초청·영주·귀화등 출입국 관련 법령과 한국생활 적응 교육
-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등 교육

이수자에게는 귀화 필기시험, 귀화 면접심사 면제 등 혜택

###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회통합교육 전용 사이트인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교육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 외국인종합안내센터란 무엇인가요?

외국인에게 출입국, 체류, 국적, 투자, 고용 등 외국인이 한국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종합민원 상담서비스입니다.

### 어떻게 이용하나요?

- 국번없이 : 1345
- 해외 이용 시 : 82-2-6908-1345-6
- 팩스 : 1577-1346, 02-2650-4550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주간(09:00~18:00)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20개 언어\*, 야간(18:00~22:00)에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의 3개 언어로 상담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타이어, 몽골어, 인니어, 프랑스어, 방글라데시어, 우루두어(파키스탄), 네팔어, 크메르어(캄보디아), 미얀마어, 독일어, 스페인어, 타갈로그(필리핀), 아랍어, 싱할리어(스리랑카)



을 할 수 있도록 출발 전, 준비운동의 시간이 진행됐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진행자의 구호에 따라 준비운동 동작을 따라하며 경쾌한 노래와 리듬에 맞춰 가볍게 몸을 풀었다. 참가자들은 걷기축제에 대한 부푼 기대감을 나타내거나 완주를 다짐하며 저마다 활기차게 걷기축제를 준비했다.

**울긋불긋 단풍이 노란 물결로 물들어**

출발선에 선 참가자들은 다 함께 카운트를 세며 걷기축제의 순간을 기다렸다. 짧지만 긴장된 분위기가 돌아 함께 걷기축제에 참석한 아이돌 가수 JJCC가 감미로운 노래로 분위기를 풀어주며 참석자들을 응원했다. 잠시 후, 김형오 전 국회의장 외 행사 관계자들이 출발버튼을 누르자 꽃가루가 하늘 위로 터지면서 본격적인 걷기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유모차에 자녀를 태우고 나온 주부에서 손자 손녀의 손을 꼭 잡은 할머니, 할아버지, 휠체어를 탄 장애 어르신,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짝을 이룬 초등학생, 친구, 회사동료와 함께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참가자들이 길게 꼬리를 물었다. 6.5km로 이뤄진 걷기축제 코스는 참가자들의 노란 풍선과 손수건이 만들어낸 노란 행렬과 울긋불긋 단풍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한 폭의 가을 풍경화를 만들어냈다. 참가자들은 가을 향기가 듬뿍 느껴지는 들꽃을 지나치고, 그늘 사이로 불어오는 시원한 가을바람을 만끽하면서 오순도순 대화를 나누고, 웃음꽃을 피워냈다. 또 도심 속에서 가을의 멋을 만끽할 수 있는 걷기축제와 참가자들의 행복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도 했다.

**울긋불긋 단풍처럼 어울려  
함께 걷기 좋은 날**

2014 제4회 한마음걷기축제날 아침, 하늘이 잔뜩 흐려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출발 전, 준비운동을 마치고 나자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따스하고 쾌청했다. 가을 햇살 아래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을 에워싼 울긋불긋 색 곱게 물든 단풍잎을 보며 우리도 함께 어울려 아름다운 색을 내보이며 다짐하게 만드는 행사였다. 그날은 정말 걷기 좋은 날이었다.

10월 26일, 이른 아침부터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이 떠들썩했다. 이른 아침부터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족, 유학생, 일반시민 등 약 3천 200여 명의 참석자가 행사장에 도착해 개막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기다렸던 축제는 바로 올해로 4회를 맞이한 한마음걷기축제! (사)건강사회운동본부가 주최하고 법무부에서 후원하는 세계인의 축제로,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모든 외국인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응원하며, 내국인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걷는 소통의 기회로 마련된 행사다. 특히 올해 걷기축제는 온라인 접수가 조기에 마감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관심이 뜨거워짐을 느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보다 더욱 성대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스태프들의 움직임이 분주했다.

**준비운동도 다 함께 화합하며!**

이날 행사에는 김형오 전 국회의장,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장관,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홍보대사 예바 외에도 서울출입국사회통합 송희순 위원장과 출입국·외국인정책 한무근 본부장, 이귀남 전 법무부장관이 참석해 격려사를 통해 참가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첫 번째 순서로 '제2회 이민자 사회통합 기초질서지킴이 공모전'의 시상식이 열렸다. 건강사회운동본부가 주최하고 법무부와 안전행정부가 후원한 이 공모전에서는 포스터와 시, 글짓기 등 세 개 부문으로 나누어 수상을 진행했으며, 대상인 법무부장관상을 포함해 최우수, 우수, 장려상 등의 시상이 이어졌다. 한무근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이 무대에 올라 시상자로 나서 대상 수상자에게 상패를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이후 모든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운동

**출입국 문제, 전담 부스에서 상담 받아요!**

고충상담이나 다문화행사 참여를 위해 행사장을 찾는 외국인들도 많았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를 비롯한 서울, 인천, 수원 등 수도권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 또한 걷기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재한외국인을 위한 고충상담을 실시했다. 출입국 직원들은 전용 부스에서 재한외국인들에게 체류업무, 국적, 사증, 사회통합 등 출입국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상담해 주고 맞춤형 해결책도 제시해주었다. 많은 재한외국인들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부스를 찾아와 고충상담서비스를 이용하고, 평소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부스를 방문한 유학생 릴리어나 씨(러시아)도 부스를 나설 즈음에는 환한 미소를 머금었다.



**“함께 걸으니 힘들지 않아요!”**

트란 티 큐엔(필리핀) & 유예롱(중국)

건국대학교 유학생 친구들과 함께 축제에 참석했어요. 1시간 만에 코스를 모두 둘러보고, 완보증을 받으니 뿌듯한데요? 발걸음도 즐겁고, 마음이 가벼워졌는지 6.5km가 걷다 보니 짧게 느껴지네요. 오늘처럼 함께 걸어주는 친구들이 있으면 힘든 일도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들어온 지 2년째인데요, 내년에 대학을 졸업해요. 본국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국내 여행을 하고 싶은데 체류허가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궁금했어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이 체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방법과 설명을 자세하게 알려주었어요. 축제도 즐기고 고민도 시원하게 해결했네요.”

한편 곳곳에서 한국어와 모국어가 능통한 결혼이주 자원봉사자들이 행사에 처음 참석한 외국인들을 안내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다름을 이해하는 세계문화 교류의 장**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다양한 나라의 전통의상과 악기, 장식품 등이 전시된 나라별 부스에도 외국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외국인들이 직접 자국의 문화를 내국인에게 알리는 기회이자 자국민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공간이었다. 일본 부스를 방문한 한 시민은 생전 처음으로 일본 전통의상인 기모노를 입어보며 신기함을 감추지 못했으며, 부스 앞에 놓인 일본 전통 공놀이는 강한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던지 남녀노소 도전하게 만들었다.

걷기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광장 한 켠에서는 무료 건강검진 등 체험 부스가 다양하게 마련됐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에서

지원한 무료 건강검진 부스에서는 재한외국인을 대상으로 내과, 한방과, 약국 등을 운영해 건강검진 내용에 맞는 상담과 치료를 진행했는데 그 인기가 가장 뜨거웠다. 또한 고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향수를 달래는 시간도 제공했다.

**완주의 기쁨 보다 함께 하는 즐거움**

공원을 산책하는 기분으로 걷다 보니 발이 빠른 사람들은 어느새 반환점을 통과했다. 이날 완보증을 받은 트란 티 큐엔 씨(필리핀)도 1시간 만에 코스 주파에 성공했다.

“마음이 가벼워졌는지 6.5km가 걷다 보니 짧게 느껴졌어요. 상쾌한 가을바람으로 좋은 기운과 에너지를 받아 활력을 재충전했지요.” 걷기 행사가 끝나자 다채로운 볼거리가 참가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다문화 합창단, 어린이 뮤지컬, 난타, 치어리더와 아이돌 가수 JJCC의 퍼포먼스에 참가자들의 박수와 응원이 끊이지 않았다.

‘걷고 화합하고 배려하고 나누고’의 축제 슬로건에 맞는 세계인의 축제 한마당으로 기억될 2014 제4회 한마음걷기축제. 노란 물결 속에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함께 걸었던 추억을 간직한 외국인과 내국인은 언젠든 서로의 손을 맞잡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팜티에진(베트남) & 응우엔티킴 로안(베트남)

둘 다 처음으로 한마음걷기축제에 참여했어요. 한국에 온지 5년 차 주부인데요, 베트남 전통의상을 입고 한국인과 다른 외국인들에게 우리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색이 화려한 베트남 의상이 정말 멋있지 않나요? 고향 친구인 로안과도 축제에서 만나 고향 분위기를 한껏 느꼈습니다.



# 고향처럼 포근한 전주, 가족처럼 따뜻한 직원들

전주출입국사무소의 특징은 타 지역과 비교해 등록외국인 중 결혼이민자 비율이 21%에 이를 정도로 높다는 것이다. 11월 현재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가 주관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 인원은 1,169명. 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업무에 많은 정성을 쏟는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일일 특파원**  
물리하 샤리프자만(방글라데시)

“인심 좋고, 살기 좋은 전주에서 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는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소개합니다.”



## 이방인도 살갑게 대해주는 살기 좋은 전주

반갑습니다, <共ZONE> 독자 여러분. 저는 교환학생으로 전북대학교에 와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영국으로 건너가 생활하다가 아내 삼사드 자한과 한국에 다시 온 물리하 샤리프자만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전북대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주)정신건설에 입사하여 해외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주를 비롯한 전라북도는 낯선 이방인들도 살갑게 대해주는 정이 많은 고장입니다. 지역정서를 말하려면 전주의 어제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전주는 과거에는 한국 6대도시에 들 정도로 살기 좋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 끝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넓은 평야가 있고, 서해안에서 거둬들인 해산물이 풍부하여 전국에서 가장 먹고 살기 좋은 조건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 사람들은 정이 많고 인심도 아주 좋습니다. 전주 사람들의 부드럽고 느긋한 말투에서도 푸근함이 느껴지지요. 후덕한 지역정서는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청사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된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청사는 아담한 편입니다. 1998년 건축 당시에는 등록외국인이 4천여 명에 불과했었는데 현재는 5배 가까이 증가한 약 2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조금은 좁다는 느낌도 드는군요.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직원 정원은 24명인데 군산출장소에 7명이 상주하고 있고, 전주에는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어서 업무가 배로 많아 고달프지만 직원들 사이는 늘 화기애애한 가족 같은 분위기입니다.





### 내 집처럼 편안하고 푸근한 종합민원실

청사에 들어서면 1층에는 종합민원실과 이민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관공서를 출입한다는 게 조금은 낯설고, 괜한 긴장감도 생기기 마련인데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들어서자마자 따뜻한 미소로 맞이해주기 때문에 내 집처럼 편안하고 푸근합니다.

체류업무를 담당하는 문정기, 김성문 반장님께서서는 “민원인들을 내 집에 온 귀한 손님이라 여기며 정성을 다해 친절하게 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국적업무를 담당하는 엄익근 반장님께서도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좌우하기 때문에 고객만족을 위해 더욱 신경 쓰게 된다”며 환하게 웃으십니다.

그런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니 참 편안합니다.

민원실의 또 다른 꽃은 자원봉사자입니다. 오늘은 6년 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은 쩌 티흐영 씨께서 바쁜 시간을 쪼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쩌 티흐영 씨는 한국말도 잘하고, 민원서식 작성에도 능숙해 처음 이곳을 찾는 이민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자원봉사자인 쩌 티흐영 씨는 한국말도 잘하고, 민원서식 작성에도 능숙해 처음 이곳을 찾는 이민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전주사무소 등록외국인은 약 2만 8천명 정도인데 국적별로는 중국이 1만여 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출신은 약 5천명입니다. 전주사무소는 등록외국인 중 결혼이민자 비율이 21%로 전국 평균의 2배나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약 5천3백명 정도인 결혼이민자 중 베트남 출신은 2천여 명으로 40%를 넘습니다. 쩌 티흐영 씨처럼 먼저 온 선배들이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낯선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들에게 도움을 주면 큰 힘이 되고, 위안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 행복공감,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율 전국 최고

민원실 맞은편에는 이민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관할구역 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다른 지역보다 사회통합프



지난 11월 18일 사회통합프로그램 최종단계 수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자들에게 합격증을 수여하였다.

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박상길 이민통합계장님께서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원광대와 우석대다문화센터 등 2개 거점기관, 18개 일반기관 등 20개 운영기관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과 결혼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인원이 약 1천8백명에 이르는데 등록외국인수와 비교한 프로그램 참여율이 전국 최고”라고 귀띔해주십니다.

사실 외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어, 한국의 문화와 전통, 법규 등 한국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심도 있게 교육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매우 유익합니다. 하지만 잘 몰라서, 귀찮아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곳에서는 교육이 있을 때마다 강사님들 또는 직원 여러분께서 “주변의 이민자들에게 프로그램 참여를 권해달라”고 항상 강조하십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의지와 프로그램 이수자들의 홍보효과 덕분에 전주사무소가 주관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가 많은 모양입니다.



### 오늘은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 수여식이 있는 날

마침 오늘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최종단계 수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자들에게 합격증을 수여하는 날입니다. 청사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수여식에서는 일본 출신의 마키다 요시에 씨를 비롯한 13명의 합격자들이 합격증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을 받았습니. 합격자 가족들과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정병열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께서도 함께 자리하여 진심으로 축하해주셨습니다. 합격증을 받은 분들의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번졌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합격증을 받게 되어 무척 기뻛고, 한국에 대한 애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합격자에 대해서는 국적신청 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등이 면제되고, 각종 체류자격 변경 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이 면제되거나 가점이 부여되는 혜택도 따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사람도 합격이 어렵다는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을 통해 ‘내가 한국에 대한 기본소양을 갖춘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자부심과 자신감일 것입니다. 합격증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떠나서 이민자들 모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국생활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국적과 인종을 떠나 인류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우선하며,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한 배려를 통해 외국인들도 살기 좋은 전부를 만들어가는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여러분들께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



### “이민자들에게 형님·친정오빠 같은 소장님”

합격증 수여식에 참석한 정병열 소장님께서서는 “낯선 이국땅에서 살아가는 이민자들에게는 특별한 배려가 필수”라고 강조하시면서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만큼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달라”고 따뜻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사무소를 방문한 이민자들과 마주치면 늘 먼저 다가와 인부를 묻고, 민원업무 처리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타국 생활에 어려움은 없는지 물어보시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 소장님은 이민자들에게 형님 또는 친정오빠 같은 분입니다.



## The capital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JEONJU

전주의 옛 이름은 완산이다. '완(完)'과 '전(全)'은 모두 '온전하고 흠이 없다', '모든 것을 아우르다'는 뜻이 담겨 있다.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전주는 사람 살기에 좋은 곳이다. 드넓은 평야와 바다로 연결되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일찌감치 풍요의 고장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 풍요로움에서 비롯된 섬세한 멋과 맛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며 전주를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남게 했다. 서울이 '한국의 행정수도'라면 전주는 '한국 전통문화의 수도'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 풍요로움이 만든 전주의 섬세한 멋과 맛

#### The delicate grace and savor of Jeonju made with richness

Jeonju, with population of 650,000, is a home of 'food creativity' designated by UNESCO as well as home of pansori. Besides that, it is a city that is proper Korean, with the traditional cultures representing Korea which have been preserved well, including Hanok and Hanji. Presently, Jeonju is just a minor city that is not much different from other cities but going back to 1960s, Jeonju was one of the Top 6 Cities in Korea. The composure in people's mind derived from the lives filled with richness has created the graceful style and savors which can only be experienced in Jeonju, and it has been passed through generations, remaining as culture and arts with high standards. Nowadays, Jeonju is famous as 'Hanok Village'. In 2010, the International Slow City Union, Cittaslow praised 'Seoul for being the administration capital, and Jeonju for being the capital of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after appointing Jeonju Hanok Village as the world's first 'Slow city within a city', visitors of Jeonju are continuously increasing every year.

### 한 해 6백만 명이 찾는 전주한옥마을

#### Jeonju Hanok Village visited by 6 million people annually

In Jeonju Hanok Village, there are 603 Hanok and 171 normal houses. The Hanok Village started to form here in 1930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At that time, Japanese who rushed into Jeonju dominated the commercial supremacy and once they gradually started to expand their territories, Jeonju people started to make a village by building Hanok. In other words, Hanok which was built then wasn't just a simple style of architecture but was an anti-Japanese movement that carried the national spirit.

The total circumference of Jeonju Hanok Village barely reaches 3km. This means that no matter how you plan the course, you would be able to see almost everything in less than half a day. In Hanok Village, it's not just about looking through eyes. As long



as you have the desire, you would be able to experience things as much as you want through the various programs that can be found all over the place. If you didn't have the time to study about Jeonju Hanok Village prior to leaving on the journey, drop by the Tourist Information Center for a map of Jeonju so that you can plan the course on the spot for meaningful memories.

**한옥마을은 좁지만 볼 것은 많다**

**Small but many things to see in Hanok Village**

If you look into the map with the details on the smallest streets of Hanok Village, you would be able to know in one glance where you should be heading towards. You would be surprised to find the cultural facilities. There are many stores that exhibit and sell handicraft works made by the artists of the regions such as masks, jangseung, dolls, potteries and fans. Of course, no one would tell you to come in and see without making a purchase.

Hanok isn't the only thing in Jeonju Hanok Village. Gyeonggij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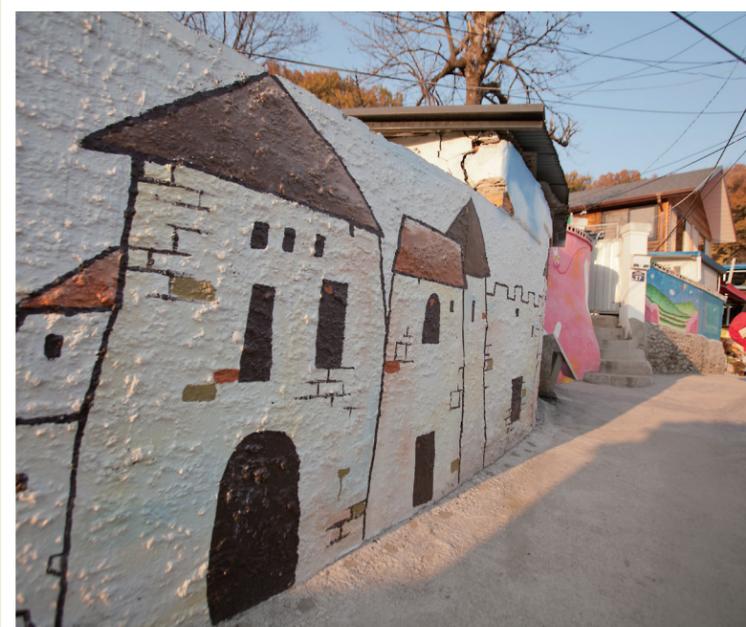
Hall which is a shrine of Erjin (a king's portrait) of Taejo Lee Sung Gye, a king who founded Joseon as well as a gingko tree that is a few centuries older, are more than enough to present you with a touching and gentle hyanggyo and Jeondong Cathedral which is the biggest and the oldest building among the Western contemporary architecture in the Honam province is located in the middle of the village. Across one street, Pungnammun and Pungpaegigwan (Jeonju Inn) which pride in its splendid architectural beauty as well as Namju Market which is filled with folksy food such as beansprout rice soup captivate the eyes of the tourists. Seeing, eating and feeling many things at one place without having to go far is another attraction of a trip to Hanok Village.

**고택의 처마 밑에서 느끼는 천년의 향기**

**Scent of a thousand years felt beneath the eaves of ancient houses**

The true beauty of Hanok Village lies in the aesthetics of slowness that can be found in the traditional Hanok. If your feet are tired from walking around, it would be a good idea to relax your body and soul at Eunhaeng-ro which penetrates the center of the village towards the North-south as the clear sounds of stream flowing please your ears. Along with Taejo-ro which penetrates the village in the East-west direction, Eunhaeng-ro which is considered the downtown of Hanok Village embraces Silgaechoen Stream that is comprised of granite stone. A gazebo, a small pond and waterwheel can be found here and there in the vicinity of the stream, adding clarity to the atmosphere. Just glancing at the water flowing and contemplating as you relax will rejuvenate yourself, adding energy to life. Another suggestion is walking along Jeonjucheon Stream located in the southern part of the village, and engrossing yourself. Visiting the Jaman mural village located in the foot of the mountain opposite Omokdae would have you reminiscing about your children.

Accommodation is an important part of a travel and that is the least thing you have to worry about in Hanok Village. Tha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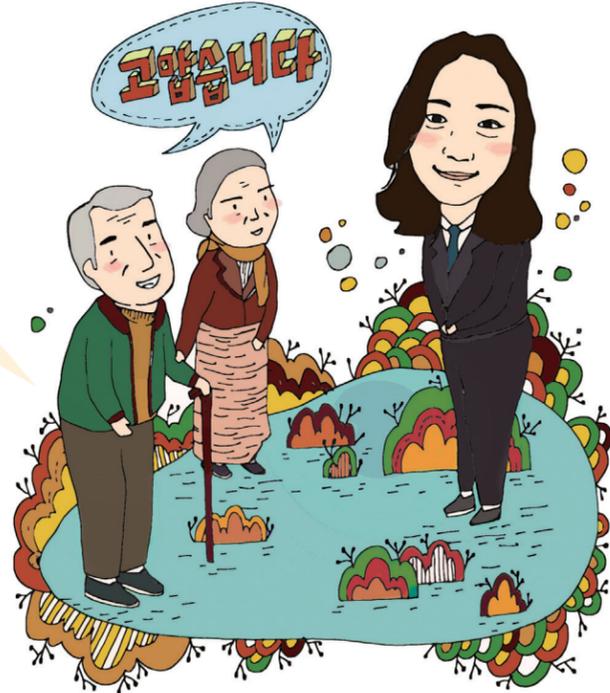
# 오늘도 민원인을 위해 뛰다~

민원인 만족 100%를 위해 오늘도 밝은 미소와 친절한 서비스로 민원인들을 마주하고 있는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직원들. 수많은 업무 속 생겨나는 사연의 수만큼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칭찬의 소리도 늘어난다. 오늘은 또 어떤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문을 두드렸을까.

## 힘을 북돋아 주는 말, "고맙습니다"

우리 사무소는 일 평균 방문민원이 650여 명으로 방문민원 처리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대기 시간이 긴 날도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노부부께서 저와 얼굴을 마주하자마자 언짢은 말씀을 하셨어요. 순간 저도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그럼에도 업무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고, 안내 서류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적어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니 업무가 늦어지는 건데 짜증부터 내서 미안하고,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서운한 마음이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박소영 서기(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 값진 보람으로 돌아오는 자랑스런 나의 일!

몇 해 전, 한 민원과의 사연이 추억으로 떠오릅니다. 신장 관련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자녀 둔 중국동포가 대전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수술비와 치료비가 감당하기 힘들어 의료보험 혜택이 가능한 자격으로 비자를 변경이 가능한 지를 문의하셨습니다. 사실 당시 규정상으로는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대전 대덕구청, 본부에 승인상신 절차를 거쳐 의료보험이 가능한 비자로 변경해드렸습니다. 또 대덕구청에서는 모금활동을 펼쳐 금전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로 어려움에 처한 민원인에게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값진 보람을 느꼈습니다.

오승택 계장(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성심껏 해결합니다

지난 8월, 업무마감 10분 전에 한 민원인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민원업무를 마치고 급하게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에 인지대금 영수증을 미처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급히 필요한 영수증이어서 팩스로 받기를 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지 담당자에게 가서 영수증을 받아 신속하게 보내드렸습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민원인을 도와 성심껏 해결해 드리려는 제 마음이 통했나 봅니다. 항상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스스로 반성하며, 친절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남훈 팀장(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 든든한 도우미,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서울출입국사무소에는 약 30명으로 구성된 글로벌 자원봉사자들이 민원인을 돕고 있습니다. 오랜 이민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와 출입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제가 느꼈던 어려움을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된 재외동포와 외국인이 겪지 않게 도와드리고 싶어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캐나다에서 온 재외동포분을 도와 고마운 마음이 담긴 문자를 받는 등 보람 있는 일도 있었네요. 외국인들이 출입국사무소를 어려운 곳이 아니고, 글로벌 매너를 갖추고 방문해야 하는 품격 있는 곳으로 느끼는 그 날까지 봉사하겠습니다.

권영구(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자원봉사자)



# 유학생 유치를 넘어 활용을 고민할 때!

주요 선진국들은 인종과 국적을 넘어서 고급 두뇌를 유치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렇다면 글로벌 전문인력으로서 잠재력이 높은 인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매년 국내 대학을 졸업하는 유학생이 하나의 인재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ere is a fierce struggle for attracting high-qualified human resources called global talents that transcends their races and nationalities among advanced countries. Then, where can we find such human resources? International students who completed their studies in Korea may give us the answer.

## 정부 차원의 유학생 정책 전개

2005년 시작된 '스터디코리아 프로젝트'는 2004년 대통령의 지시로 유학생 유치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정부는 유학생 유치를 통해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기대했다. 나아가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도약'이라는 다부진 비전도 선포됐다. 당시 프로젝트의 목표는 2010년까지 유학생 5만 명을 유치하는 것이었다. 2004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1만 6,832명이었던 상황에서 이러한 목표는 야심찬 목표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 목표가 2007년에 조기 달성됐다. 2000년대 들어와 아시아를 중심으로 K-POP과 한국 드라마로 대표되는 한류 열풍이 불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려는 젊은이들이 늘고, 국제 무대에서 한국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한국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한국유학을 결심하는 외국인이 늘어난 것과 같이 외적 영향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유학생 유치를 위해 예산을 증액하고 정부 장학금을 확대하며, 대학들도 유학생 유치를 위해 노력한 점이 유학생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목표가 조기 달성됨에 따라 2008년에 정부는 새로이 '스터디코리아 프로젝트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국외 인적자원의 개발·활용'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는데,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이전 계획에는 고려하지 않던 유학생의 졸업 이후의 지원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과거 유학생 유치에만 관심을 기울이던 데에서 한 단계 나아가 유치한 유학생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를 국익 증진 과제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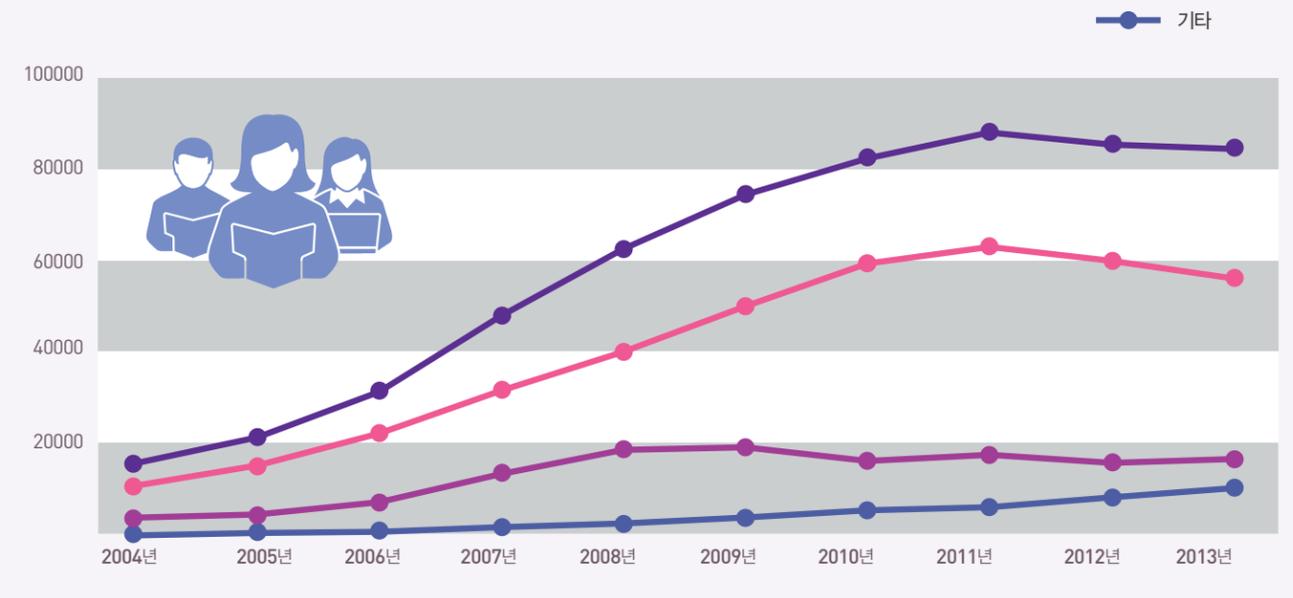
다른 한편에서 국내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인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어 2008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외국인 정책과 유학생 정책의 연계 조짐이 나타났다. 고등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잠재적으로 한국의 국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 우수 인재로 간주하고,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우수 인재 유치 사업의 일환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하기 시작한 것이다. 2012년에 스터디코리아 프로젝트의 2단계 사업에 해당하는 '스터디코리아 2020 프로젝트'가 발표되면서 정부초청 외국인 유학생 사업은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국제장학프로그램(Global Korea Scholarship: GKS)에서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 예산이 2015년까지 연 1,000억 원 규모로 크게 확대되어 미국의 풀브라이트와 같은 한국의 대표 장학사업으로 육성될 계획이다. 유학생 유치와 더불어 '유학생 정주여건 개선 및 취업 연계'가 세부 추진과제로 제시되어 유학생 활용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도 재차 확인되었다.

## 우수인재의 활용 한계

하지만 정부는 유학생 활용을 위해 이렇다 할 프로젝트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유학생 활용도 저조하다. 유학생을 유치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교육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FIMS(Foreign Studen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라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08), 교육정책포럼 177호(한국교육개발원)를 간추린 교육통계  
주: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에 한정 단위: 명



불리는 유학생 정부시스템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FIMS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학업이수 후 취업했다고 예상되는 학생, 즉,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취업비자로 전환한 유학생은 많지 않았다.

정부초청 석박사과정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유학생들이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하지 않은 이유는 본국에서 더 나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27.0%)라거나 한국의 취업이 어렵기 때문(14.6%)이라는 이유가 상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학생들의 국내 취업이 어렵고 이것이 유학생 출신 우수인재의 국내 활용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학습했고, 국제적 감각도 갖춘 유학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학생 활용을 촉진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내 유학생의 특징을 분석하고, 유학생의 장점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면서 유학생에게 유용한 취업박람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산학 컨소시엄을 통해 재학 중인 우수 유학생의 인턴십을 확대하는 것 역시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중장기 비전이 없다면 지속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다. 정부의 유학생 정책에서 활용 부분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유학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외국사례도 적극 벤치마킹하여 국내 실정에 적절한 유학생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국내 체류유학생이 주로 아시아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의 유학생 취업지원 사업인 '아시아인재자금지급'도 좋은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다. 🇯🇵



국제이주기구(IOM)와 대한민국 정부간 국제협정에 의해 2009년 12월에 설립된 비영리 연구·교육 기관. 지역사회와 정부, 나아가 아시아 지역 및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민, 다문화 정책에 특화된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와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외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법무부, '재정착희망난민제도' 도입 공청회 개최



법무부는 유엔난민기구(UNHCR)와 공동으로 10월 29일 '재정착희망난민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바람직한 한국형 재정착희망난민제도 도입 및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 협력 방안, 국제이주기구(IOM)의 난민 재정착프로그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무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정착희망난민 제도는 난민들을 위한 세계적 연대제도로서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제도를 마련하는데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MoJ held a public hearing on the introduction of 'Refugee Resettlement System'

The Ministry of Justice and UNHCR jointly organized a public hearing for introduction on 'Refugee Resettlement System' on October 29. The topics for discussion included introduction of desirable refugee resettlement system for Korea, close cooperation between civic groups and municipal governments, and IOM refugee resettlement system. Mr. Han moo-geun, the Commissioner of Korea Immigration Service, said in his opening speech "refugee resettlement system is an international joint system that provides refugees with opportunities for new life, and different opinions from different sectors will be reflected on devising our own system that fits the situation in Korea."

## 체류안내·고충상담 받기 쉬워진다

법무부는 10월 7일부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의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서비스' 대상 범위를 2년 미만의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유학생까지 대폭 확대

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1~2년차 결혼이민자(중국, 베트남 등 7개국)와 외국인 유학생(중국, 베트남, 몽골, 일본 출신 4개 국가)들이 전문 상담원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 취업, 영주권·국적취득, 가족초청 절차 등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서비스'는 입국 초기 이민자들에게 외국인 출신 상담원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 체류절차와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국내 생활에서의 고충을 상담해주는 제도로, 현재 외국인 출신 25명(귀화자 17명 등) 포함 93명의 상담원이 20개 언어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Better and Easier Counselling Service

The Ministry of Justice will expand the 'Customized Counselling Service' by the Immigration Contact Center to marriage immigrants under 2 years of stay and foreign students. This will allow marriage immigrants (from 7 countries including China and Vietnam) under 2 years of experience living in Korea and foreign students (from China, Vietnam, Mongolia, and Japan) to more easily obtain information on extension of stay, employment, acquisition of permanent residence and nationality, and invitation of family members. The 'Customized Counselling Service' utilizes counsellors from foreign background who make calls to new immigrants to provide information on stay and general living in Korea and counselling on their difficulties. Currently, 93 counsellors including 25 foreigners (17 naturalized) are providing counselling service in 20 different language

## 국익 기여 특별공로자, 두 번째 국적증서 수여식



법무부는 10월 31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한 공로로 특별귀화허가를 받아 우리 국적을 취득한 특별공로자 2명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에 국적을 취득한 브라서 마리 헬렌(벨기에 국적) 전진상의 원 원장은 서울 시흥동 판자촌에 무료 진료소 '전진상 가정복지센터'를 개소,

42년간 39만여 명의 저소득층을 진료해왔고, 한국의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해 왔으며, 2014년에 신설된 '올해의 이민자 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함께 국적을 취득한 엠넬리(러시아 국적) 박사 또한 1992년 한민족 학교를 설립해 동포들에게 한민족의 주체성과 긍지를 심어주었다. 엠넬리 박사는 "고려인 이주 150주년'인 올해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본인의 공로에 의해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로, 이 경우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기존의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국적과 함께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 The Second 'Nationality Certificate Presentation Ceremony' for Men of Merit

The Ministry of Justice held a nationality certificate presentation ceremony at the main conference room of the MoJ on October 31 for two men of merit who acquired Korean nationality through special naturalization permit for contributing to enhancing Korea's national interest. Marie Helen Brasseur (from Belgium), the President of the Jeonjinsang Clinic, has dedicated herself for the past 42 years for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in Korea and has also received 'Immigrants of the Year' award (Citation from the President) which was newly designated in 2014. Dr. Em Nelli (from Russia) who also acquired Korean nationality established Russia Korean School in 1992 which gave sense of identity and pride to the Koreans in Russia. Dr. Em Nelli said "I am especially pleased to acquire Korean nationality in the year that marks '150th anniversary of migration of Goryeo people to Russia'". This is the second special naturalization permit for men of merit, and the two men of merit can maintain double nationality provided that they sign 'Dual Nationality Pledge'.

##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금액 200억 원 돌파

법무부가 2013년 5월부터 시행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의 외국인 투자금액이 2014년 11월을 기준으로 200억 원을 넘어섰다. 시행 첫 해인 2013년 말까지 투자금액 규모가 13억 원에 불과했으나 인천공항 내 투자이민상담센터 개소, 전담은행 지정 등 꾸준한 투자유치 노력에 힘입어 204억 원으로 급증했다. 법무부는 2014년 10월부터 '15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5년 이상 투자유지를 조건으로 즉시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조건부 영주자격(F-5)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외국인의 공익사업 투자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Public Business Investment Immigration – Foreigner Investment exceeds KRW 20billion

The amount of foreigner investment in public business investment immigration scheme, which was first implemented in May 2013 by the Ministry of Justice, exceeded KRW 20billion as of November 2014. The invested amount was only KRWD1.3Das of the end of 2013, but it rapidly grew to KRW 20.4billion thanks to the continuous efforts to attract more investment such as the opening of Investment Immigration to Korea Center at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nd designation of exclusive banks for investment immigra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e (F-5) Scheme in October 2014 to grant permanent residency for foreigners who invest more than KRW 1.5 billion and maintain it for 5years, the MoJ expects to see a large growth in foreigner investment in public businesses in the future.

### 대한민국을 혁신하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30년의 성장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뜨겁다. 앞서 정부는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념식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으며, 국민이 행복한 선진경제 이룩을 목표로 추진전략을 이행 중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경제혁신포털 [www.economy.go.kr](http://www.econom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Innovate Korea – 3-year plan for economic innovation

The '3-year Plan for Economic Innovation' under the slogan of '3 years of innovation, 30 years of growth' is drawing great attention from the public.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3-year Plan for Economic Innovation' on February 25 at the 1st anniversary of the inauguration of President Park, and is currently implementing follow-up strategies to build advanced economy with happy citizens. You can find more information on the '3-year Plan for Economic Innovation' on [www.economy.go.kr](http://www.economy.go.kr).

#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출입국 Q&A

출입국 Q&A에 질문을 보내주세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해드립니다. 혹은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 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 문의 하시거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보내실 곳 : zee@theseven.co.kr

**Q** 한국에 관광을 위해 비자 없이 입국한 외국인입니다. 제가 한국어 연수를 하거나 한국 대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I am a foreigner entered into Korea with visa exemption for tourism. If I decide to study Korean language or enter university in Korea, can I get the student visa without leaving the country?

**A** 비자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시 관광통과(B-2), 사증면제(B-1) 체류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러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즉 비자 없이 입국한 외국인이라도 국내에 있는 대학에서 입학허가를 받는다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출국 없이 국내에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Foreigners who entered Korea without visa are granted either B2 (Tourist/Transit) or B1 (Visa Exemption) status. However, if a foreigner in such case is admitted to the university in Korea, he or she can change the status with the permission of status change at the local immigration office.

**Q** 대학 졸업 예정인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졸업 후에 국내 여행을 하고 귀국하고 싶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출국을 해야 하나요?

I am a foreign student who will be graduating from a university in Korea soon. After graduation, I want to travel in Korea before going back to my home country. Do I have to leave immediately after my graduation?

**A** 대학을 수료하거나 출국하는 경우 부여받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시면 됩니다. 부여받은 체류기간이 짧아 국내 여행 등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해 30일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신청은 신청서와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If you are graduating from university in Korea, you can leave within the visa expiration date. If the time is too short to travel in Korea, you can extend your stay in Korea up to 30days through 'Extension of period of stay for departure'. Application for extension of stay can be submitted to the local immigration office with the application form and explanatory materials. There will be no extra charge for application.

# BLUE POST

〈共ZONE〉이 보다 알차고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Send us your precious opinion so 〈共ZONE〉 can become more profitable and various.

**김혜지 Kim Hye-ji** 전북 신안군 정천면 • 한국

장위안 씨와 줄리안 씨의 인터뷰 기사인 '문화의 벽을 넘은 비정상 콤피, 우린 한국에 푹 빠졌어요'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평소 두 분이 출연하는 TV 프로그램을 즐겨보면서 두 분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 기사를 통해 궁금증이 해결되어 좋았습니다.

The article 'A strange combination transcending cultural barriers: We're in love with Korea,' a joint interview article from Zhang Yuan and Julian, was an interesting read. I'm a fan of the TV program the two stars in, and it was nice to have a lot of my questions answered.

**레이 Ray**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 호주

보우디 베이커(Bodey Baker) 씨의 취업 성공기 기사를 읽고 저와 같은 호주 사람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많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기사를 통해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Reading the article on Bodey Baker's successful attempt at finding a job in Korea, it was nice to see what Australians like myself are doing in Korea to realize their dreams in the alien land of Korea. I'd been quite intimidated, being in a stranger in the country, but the article gave me much courage.

## 애플 다운 받고, 선물 받고!



### 인증샷 이벤트 당첨자



**조나영 zee@gmail.com**  
가을호의 '미션 파서블'이라는 코너에 참여한 조나영입니다. 그날 제가 한복 입는 법을 배우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애플북에 실리게 된다고 알려주셔서 바로 다운을 받았어요. 독자 입장에서 애플북은 책에서 볼 수

없었던 사진과 동영상을 애플북을 통해 더 많이 보게 되어 재미있고, 깊이 있는 정보를 알 수 있어 유익한 것 같아요.



**이보희 2\_bbo\_2@naver.com**  
우연히 알게 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共ZONE〉 애플북! 외국인 친구들에게 알려주면 좋은 정보가 가득 들어 있어서 제 휴대폰과 아이패드에서 앱을 다운받았습니다. 애플북은 언제든지 스마트기기로 볼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가을호 내용도 좋지만 표지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겨울호 표지도 기대하겠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재한외국인을 위해 발간하는 공감매거진 〈共ZONE〉을 통해 실생활에 필요한 주요 정책 정보와 재한외국인의 한국생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애플북을 다운로드 받고, 애플북과 함께 한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共ZONE〉 애플북 iOS 사용자는 앱스토어에서, Android 사용자는 구글플레이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보내실 곳 zee@theseven.co.kr



iOS용



Android용